



10년

완주방문의 해 성공 위해 다시 '의기투합'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음 10월 20일) 제290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잼버리, 범정부 차원 전폭 지원 약속”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

대회 성공 위한 7개 분야
22개 협력 지원과제 등
지원계획 심의·의결

정부 지원과제와 별도로
송 지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개통 건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제1차 세계 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이하 정부지원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 송하진 도지사, 각 정부 부처 장관 등 12명의 정부위원과 청소년·행정·경제 등 각계 분야 민간위원 8명 등 20명이 함께하며, 정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며,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축제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도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왼쪽)가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지원과제와 별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3년 잼버리 개최 전에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부지에서의 영내 과점활동과 함께, 영지를 벗어나 14개 시·군 전역에서 영외 과점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잼버리 전에 입국하는 참가자들과 행사 이후 잔류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한편 잼버리 기간에는 대회 운영요원(1만명)이 전북을 체험하고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전북도가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영외 과점활동과 관광프로그램의 14개 시·군에서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동시간의 단축이 관건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도내 서부권에서 내륙과 동부권을 단시간에 이을 수 있는 핵심축이 되는 만큼, 잼버리 개최 이전까지 새만금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분기점까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2022년과 2023년 예산을 집중투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정부지원회에서는 7개 분야 22

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분야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대책마련과 관련 감염병 재난·안전대책, 대테러, 아동·청소년 성보호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잼버리를 최우선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현장 응급의 의료요력을 지원하며, 개최 시기인 8월은 태풍·호우·무더위 등의 우려가 있어 재난 유형별 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기구를 가동키로 하고,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외동포 참가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행사 기간 내 국립 문화시설 무료 개방 또는 요금할인, K-POP 콘서트 개최와 익산·김제·정읍 등 인근역과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개발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잼버리연계 첨단기술 홍보와 관련,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만큼, 전지차·수소차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 등 우리가 개발하는 친환경 신기술

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정부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잼버리 콘텐츠 확산,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홍보 등 범정부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신속한 참가자 편의를 위해 공용물품 면세적용 등 통관지원,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비자 심사 수수료 면제 등 입·출국 절차 간소화, 부안노선 차량 및 임시열차(호남선·전라선 등) 증편 등 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참가자들의 국내편관을 위해 대규모 회원국 대표단이 대학 기숙사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관련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과 관련해 잼버리 관련 시설은 도로·배수로 등의 부대시설은 2022년 5월까지,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덩굴터널, 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아영장대 집회장 등 직접 관련 시설은 2023년 5월까지 완료해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전북연구원에서 분석한 새만금 잼버리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새만금 SOC 조기 구축, 행사 운영효과, 국가브랜드 제고, 캠핑산업·관광산업 발전 등 국가적으로는 9조8,016억원, 전북도는 5조5,318억원에 달한다. /유호상기자

바람따라
완주따라

2021-2022
방문의 해

국가예산 확보 ‘전력질주’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 국회 예결소위 위원 등 집중 공략
송하진 도지사, 25일 국회 다시 찾아 마지막 총력전 전개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예결소위 감액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결 소소위 심사를 앞두고, 전북도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를 중심으로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조봉업 행정부지사의 국회 예결위원 대상 활동과 16일 송하진 지사의 국회의장 면담 등 국회 활동에 이어, 23일에는 신원식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전의 전면에 나섰다. 이날 신 정무부지사는 예결소위 위원인 신영대·강득구·김선교 의원과 지역 연고의원으로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 기재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과 강원구 사회예산심의관을 일일이 찾아 내년도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도와 시·군 합동 국회 상주반이 운영되고 있는 신영대 예결소위 위원실을 찾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표창을 하고,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며,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예결소위 위원인 강득구 의원을 방문해 지난 9일 환경부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절차가 완료된 김제 읍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 등 연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등 새만금 분야 4개 사

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임실) 동행의원으로 예결소위 위원인 김선교 의원과 민남을 갖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출·실증 지원서비스’ 사업 등 농업 분야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임실군 동행의원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임실군 ‘육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지역 연고의원으로 예결위원인 정운천 의원을 방문해서는 도내 탄소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의 예산 반영 건의와 함께, K-Film 제작기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내년도 기본 및 실시계획비 10억 원과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 문화관광분야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강원구 사회예산심의관과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요청하고, 경제·사회 분야별 핵심사업 5건에 대한 필요성 설명에 이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예산 국외결사까지, 남은기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치관-도-시군의 탄탄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핵심사업 증액 반영에 매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25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28일 국회를 제1차 방문해 각 당 지도부와 기재부 핵심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전개한다. /유호상기자